이베로아메리카 제7권 1호(2005)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 현황과 전망

김 우 성*

<Abstracto>

Como es sabido, recientemente ha incrementado espectacularmente la población de orígen hispanohablante en Estados Unidos. Según las últimas estadísticas del senso de la población dadas a conocer en abril de 2005, hay 41,332,070 personas de orígen hispánico, que representa el 14.2% de la población total de Estados Unidos. Como el resultado de este enorme incremento poblacional, el español, lengua materna de la mayoría de la pueblos hispanos de este país, se ha convertido en el idioma segundo más hablado del país, de manera que su presencia es innegable en las esferas tanto públicas como privadas.

Sin embargo, el uso del espanõl en Estados Unidos declina a través de las generaciones. Esta situación parece estar generalizada tanto fuera del hogar como en el ámbito familiar. Fuera de las comunidades hispánicas, la actitud de los norteamericanos hacia el español y sus hablantes no es positiva. A pesar de ello, en la actualidad, la lengua española se ha convertido en la primera lengua extranjera aprendida en Estados Unidos. Como lengua extranjera, ha superado al francés y a las demás lenguas en todos niveles de enseñanza.

En cuanto al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en Estados Unidos, se preve que el español no desaparecerá en el futuro cercano. Más bien en las comunidades hispanas se prevalecerá el bilingüísmo inglés-español, y se seguirá manteniendo el español, renovándose por las sucesivas oleadas de inmigrantes de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 uskin@pufs.ac.kr

Key word: Estados Unidos / población hispánica / español / bilingüísmo / inmigrantes
주제어: 미국 / 히스패닉 / 스페인어 / 이중언어사용 / 이민자

Ⅰ. 들어가면서

지난 5월 17일 치러진 미국의 제 2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히스패닉(Hispanic)인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가 당선되었다. 히스패닉이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당선되기는 인구 5000명에 불과했던 1872년 크리스토발 아길라 시장 이후 133년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히스패닉은 연방정부 각료 2명, 상원위원 2명, 하원위원 23명, 시장 5명을 가진 미국 내 소수민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히스패닉의 약진은 이들 숫자의 증가와 경제적 지위 상승과 궤를 같이 한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히스패닉 인구는 2004년 41,332,070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억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히스패닉은 흑인을 제치고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소수 민족이 되었다. 이는 바로 이들의 경제력으로 이어져 현재 히스패닉의 연간 구매력은 700억 달러로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증가와 이들의 경제력의 향상은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음악, 음식, 기업 활동 등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대다수의 히스패닉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사용의 확대가 눈에 띈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의 유세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또한 각 기업들은 앞 다투어 히스패닉 고객을 붙잡기 위해 스페인어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개의 언어로 고객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press 1 to continue, oprima 2 para español"(계속 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고, 스페인어로 하려면 2번을 누르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와 같은 스페인어의 확대는 현지 언론의 보도에서도 나타나는데, 2001년 5월 19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Si Ud. no puede hablar español, puede quedarse rezadado"(당신이 스페인어를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라는 스페인어로 된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 내 각급 학교에서 스페인어 수강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무리 스페인어가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언어가 아닌 소수 이민자들의 언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민역사를 보면 이민자들이 가져온 언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의 스페인어를 보면 이러한 예상과는 약간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언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도 미국 내의 스페인어 장래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스페인어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으

나, 스페인어의 사용 확대가 주류 언어인 영어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내의 스페인어 사용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히스패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둘째, 이들은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며, 셋째, 미국 주류 사회에서 스페인어는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넷째 향후 미국에서의 스페인어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히스패닉의 구성

히스패닉은 스페인어 및 그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그룹을 가리킨다.[1] 따라서 중남미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인 집단인 관계로 서로 간에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큰 그룹이다. 단지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는 스페인어로 히스패닉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역시 출신지의 스페인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1) 영어의 hispanic은 스페인어의 hispano를 단순히 번역한 말이다. 스페인어로 hispano는 '스페인'을 뜻하는 Hispania의 형용사로 원래는 '스페인어', '스페인의'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스페인어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를 포괄하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들을 총칭하여 Hispanoamérica라 부른다. hispanic과 함께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총칭하는 말로 latino가 있다. 이는 Latin America에서 나온 말로 현재 hispanic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단지 지역에 따라 남부에서는 hispanic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서부나 동부에서는 latino가 선호되기도 한다. 또한 hispanic은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조사를 할 때 anglo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latino와 같이 사용된다.

2004년 히스패닉의 인구는 41,322,070명으로 흑인을 제치고 미국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미국 내 제 2 소수 민족으로 등장했다.

<표1> 미국 민족별 인구분포(2004)

구분	인구수	비율
백인	197,840,821	67.4%
히스패닉	41,322,070	14.2%
흑인	35,963,702	12.1%
아시아	12,068,424	4.1%
기타	6,460,387	2.1%
총인구	293,655,404	100%

자료: U.S. Census Bureau.

히스패닉의 인구는 2000년 인구와 비교했을 때 15.9%가 증가한 것으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미국 전체인구 증가율 4.1%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증가한 미국 인구의 49.5%를 히스패닉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히스패닉 인구 증가율 비교(2000-2004)

연도	2000년	2004년	증가율
미국 전체 인구	282,192,162	293,655,404	4.1%
히스패닉 인구	35,647,334	41,322,070	15.9%

자료: U.S. Census Bureau.

히스패닉은 중남미 여러 국가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된다. 2003

년 통계에 따르면 해스패닉 중에서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전체 히스패닉의 64.5%를 차지하고 푸에르토리코계가 9.5%, 쿠바계가 3.5% 그리고 중미, 남미, 도미니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합해서 22.5%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히스패닉의 출신지별 구성분포(2003)

출신지	인구수	비율
멕시코	25,287,619	64.5%
푸에르토리코	3,717,941	9.5%
쿠바	1,363,769	3.5%
기타	8,825,508	22.5%

자료: U.S. Census Bureau.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최대 인구를 점하는 것은 미국과의 지리적인 인접성도 있지만 미국-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1848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에 의해 멕시코의 북서부 지역(미국의 남서부)이 미국 영토로 편입된 역사적인 이유와 그 동안 양국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온 경제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멕시코계 히스패닉은 주로 미국의 남서부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푸에르토리코계 히스패닉은 다른 중남미계 이민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이주자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함으로서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편입되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미국 시민자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유롭게 출신지를 왕래하며[2)]

2) 출신지와 빈번한 접촉을 하는 것은 다음에 볼 이민자들이 모국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주로 뉴욕과 뉴저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쿠바 출신 이민자들은 숫자적으로는 멕시코계나 푸에르토리코계에 비해 적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높은 수준을 지닌다. 앞의 두 이민자 그룹이 학력이 낮고, 단순 노동을 하며 생존을 위해 미국에 이민 온 반면에 쿠바 출신 이민자들은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에 성공하여 권좌에 오르자 이에 반대하여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출신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의 호의적인 정책 덕분에 빠른 시간에 미국 사회에 기반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들이 주로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는 '리틀 아바나'라 불릴만큼 쿠바 출신 이민자들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다. 이로 인해 이곳에 사는 백인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한다고 불평할 정도이다.

나머지 하위그룹은 1980년대 중미 내란으로 인해 미국에 난민으로 건너온 중미 출신 이민자들과 남미 출신의 이민자들 그리고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출신의 이민자들이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도미니카 출신을 제외하고 이들은 일정한 집단 거주지가 없다.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을 주별로 살펴보면 히스패닉 인구의 거의 절반이 캘리포니아(30.0%)와 텍사스(19.1%)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표4> 주별 히스패닉 인구수(2003)

주명	히스패닉 수	총 히스패닉 대비 비율	총 주 인구 대비 비율
캘리포니아	11,982,209	30.0%	34.6%
텍사스	7,614,910	19.1%	35.3%
플로리다	3,109,255	7.8%	18.7%
뉴욕	3,033,746	7.6%	16.3%
일리노이스	1,693,966	4.2%	13.7%
뉴저지	1,234,524	3.1%	14.1%
콜로라도	831,311	2.1%	18.7%
뉴멕시코	797,077	2.0%	44.4%
네바다	486,991	1.2%	22.1%
아리조나	152,271	0.4%	27.9%

자료: U.S. Census Bureau.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히스패닉의 많이 사는 지역인 미국의 남서부의 주들인 뉴멕시코(44%), 텍사스(35.3%), 캘리포니아(34.6%), 아리조나(27.9%), 네바다(22.1), 콜로라도(18.7%)는 주 총인구에서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Ⅲ. 미국의 스페인어 사용 현황

1. 히스패닉의 스페인어 사용 현황

이미 설명한 바대로 '히스패닉'이란 명칭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공통 언어인 스페인어에 기반 하여 편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히스패닉으로 분류되거나 자신이 히스패닉이라고 신분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패닉 = 스페인어 구사자'란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 이는 이민 2세나, 3세, 혹은 19세기 미국에 병합된 지역의 히스패닉 후손들 중에는 영어 밖에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모국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히스패닉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히스패닉은 어느 정도나 스페인어를 사용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구조사 중 언어 구사력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5세 이상 히스패닉 중 집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29,869,115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1.3%, 히스패닉 인구의 87.6%가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90년 이후 급증한 중남미계 이민자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에 집

<표5>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2003)

언어	인구수	비율
스페인어	29,698,115	61.3%
다른 인도, 유럽어	9,509,828	19.6%
아시아어 및 태평양 도서어	7,449,893	15.4%
기타	1,762,985	3.6%
총계	48,420,821	100%

자료: U.S. Census Bureau.

3) 따라서 2003년 히스패닉의 인구수인 39,901,601명을 근거로 미국이 스페인어권 국가 중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5번째의 인구수를 가진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사하는 사람들도 그 수준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의 히스패닉이 그 문화에 있어서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들과 많은 점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에서 영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모두 48,420,821명으로 이중 스페인어 사용자가 61.3%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의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190%, 1990년에 조사된 인구통계와 비교해 봐도 71.2%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스페인어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우려를 야기하는 한편,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표6>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 변화(1980-2003)

구분	1980년	1990년	2003년
가정에서 스페인어 사용하는 인구수	10,242,703	17,345,064	29,698,115

자료: U.S. Census Bureau.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면 자신의 모국어를 버리고 주류 언어인 영어를 배워 미국문화에 동화되는 것과는 달리 히스패닉의 높은 스페인어 유지율은 미국사회의 우려와 함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히스패닉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실시된 미국 히스패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 성인의 46%가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가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19%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7> 히스패닉 성인의 영어 및 스페인어 능력

구분	영어와 스페인어	주로 스페인어	주로 영어
비율	47%	40%	14%

자료 : Pew Hispanic Center 2004.

<표7>에 볼 수 있듯이 히스패닉 중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87%)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많지만 영어를 구사할 있는 사람도 61%에 이른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외국 태생의 히스패닉보다 미국 태생의 히스패닉들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또한 나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영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다. 2000년의 인구조사에서는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의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영어 구사력을 물어봤는데 <표7>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이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8> 가정에서 히스패닉이 사용하는 언어(2000)

구분	비율
영어만 사용	21.4%
스페인어 사용. 영어를 아주 잘함	37.6%
스페인어 사용. 영어를 잘 함	16.8%
스페인어 사용. 영어를 잘 하지 못함	14.8%
스페인어만 사용	8.8%
다른 언어 사용	0.5%

자료: U.S. Census Bureau.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히스패닉의

수가 90.6%에 이르고 영어를 잘 한다고 답한 사람도 54.4%가 된다. 이는 히스패닉 중에는 영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많다는 것과 그동안 히스패닉은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Huntington 2004).

이렇듯 히스패닉 사회의 영어 사용의 증가는 곧 스페인어의 상실로 이어질까? 이는 미국 내 스페인어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영어를 배우고, 세대가 지나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린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달리 세대가 지나더라도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보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8>에 나타난 것처럼 히스패닉 인구의 78%가 그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히스패닉의 이같이 높은 스페인어 유지율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이에 대해 엥스트롬(2000)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지속적 유입, 미국 내 히스패닉 문화의 산재, 남서부 지역의 오랜 기간에 걸친 고립, 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역의 존재 등을 그 이유로 들면서 이 중에서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출신지역이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왕래가 빈번하다. 멕시코나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들은 수시로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함으로써 스페인어를 사용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 이 점이 과거에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계 이민자들하고 다른 점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한 번 미국에 도착하면 본국과 왕래가

두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로뻬스 모랄레스(1994)는 히스패닉 공동체에서 스페인어가 유지되어 왔던 주요한 요인으로 이중 언어 교육의 실시, 스페인어로 된 문화활동의 존재, 매스컴의 활성화, 스페인어의 경제적 유용성을 들고 있다. 그는 특히 스페인어가 가족과 친지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일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로 부상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는, 히스패닉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인 뉴욕, 플로리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스페인어를 하는 것이 곧 사업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또한 마이애미에서는 쿠바출신이면서 스페인어를 하면 100%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요인이 히스패닉이 스페인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국 내 스페인어는 가정에서 많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민 세대가 바뀌면서 영어에 동화되어가는 다른 이민자 집단처럼 히스패닉 사이에서도 점차 스페인어 유지가 약화되는 조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민 2세는 이민 1세대에 비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도시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ópez Morales 1994, 45).

산체스(198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계 히스패닉의 도시 젊은층에서는 집에서나 밖에서 스페인어가 거의 사라졌으나 농촌의 경우에는 가정, 스포츠 활동, 종교 활동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스페인어가 더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텍사스의 국경마을인 리오그란데의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다(López Morales 1994, 50). 이 곳의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층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스페인어를 유지하고 있으나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한다고 답하고 있다.

뉴멕시코의 주도인 앨버커키(Alburqueque)의 젊은층을 상대로 한 조사(Hudson-Eduards 1982)에서도 이 도시의 젊은층의 대부분은 스페인어, 영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사용자이나 영어가 훨씬 선호도에서 앞서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빈도수도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영어, 스페인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57%)가 스페인어(28%)를 2배정도 앞서고 있다.

<표9> 14세에서 24세 사이 히스패닉의 언어 선호도

구분	영어	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
비율	57%	28%	14%

자료: Cultural Access Group 2002

이와 같은 히스패닉 젊은층의 영어 선호 현상은 인터넷 언어 선택에서는 절대적이다. 인터넷을 할 때 어떤 언어로 된 사이트를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91%가 영어로 된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답했다.

<표10> 14세에서 24세 사이 히스패닉의 인터넷 언어 선호도

구분	영어	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
비율	91%	6%	3%

자료: Cultural Access Group 2002

이와 같은 현상은 우선 젊은층의 히스패닉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페인어는 구어만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문어에 대한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며[4] 또한 스페인어로 된 사이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히스패닉 젊은층의 영어 선호 현상은 미국 이민자 그룹의 동화과정의 패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스페인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이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공적인 영역에서의 스페인어 사용

지금까지는 미국 내의 히스패닉의 개인 간에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여기서는 영어가 주류 언어인 미국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스페인어가 얼마나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히스패닉 성인을 상대로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33%가 영어만을 사용하고 스페인어만을 사용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4%에 불과 했다. 그리고 29%가 영어와 스페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열 명중의 한 명꼴로 직장에서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이는 히스패닉 성인의 이중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도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로 된 제품 사용설명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w Hispanic Center 2004, 3)

<표11> 이중 언어 구사 히스패닉이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분	스페인어만 사용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	영어, 스페인어를 똑 같이 사용	스페인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	영어만 사용
비율	4%	7%	29%	27%	33%

자료: Pew Hispanic Center 2004.

히스패닉의 급격한 증가는 중남미계 이민자들과 출산율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미국 내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고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인구가 2000년 인구조사에서 280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건너온 이민자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5] 이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적인 장벽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공적 영역의 스페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페인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을 보면 정부기관의 이중 언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언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으로 스페인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하는 것은 투표용지를 스페인어로 제작한다든가 각종 법원에서 스페인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서도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중 언어교육이 실시된다. 최근에는 스페인어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를 인식

5) 퓨 히스패닉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계 불법이민자는 840만 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위 81%를 차지한다.

하고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곳에서 스페인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뉴멕시코, 텍사스, 마이애미, 캘리포니아 등 히스패닉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각급 기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민간부문은 법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스페인어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어 사용자 수의 증가와 이들의 구매력 향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스페인어를 사용한 광고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거리에 "Se habla español"(스페인어 합니다)라고 쓴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띠는 것을 보면 스페인어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또한 미국의 최대 컴퓨터회사 중의 하나인 델(Dell)사가 히스패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페인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듯이 많은 기업들이 스페인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6]

마지막으로 히스패닉의 증가와 이로 인해 기업들의 스페인어 광고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스페인어 언론매체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TV의 경우엔 스페인어 전용 공중파 방송국 3개(Univisión, Telemundo, TV Azteca)와 CNN을 비롯한 다수의 케이블 TV가 미국 내 히스패닉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아비트론(Arbitron)의 조사에 의하면 라디오는 559개의 방송국이 존재하고, 신문은 344개의 일간 및 주간지가 발행된다.

---

6)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도 증가일로에 있는 히스패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로 된 광고 및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미국 내 스페인어의 위상

1. 스페인어 교육

비록 히스패닉의 스페인어가 세대가 바뀌면서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이 중남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인해 스페인어는 미국에서 영어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90년대 이후 급성장한 히스패닉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해 판매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스페인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 미국 내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하다. 2001년 타임/씨앤앤이 실시한 한 여론조시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스페인어를 배우도록 권장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78%가 “예”라고 대답할 정도로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미국인의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은 각급 학교의 외국어 강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2002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가을 학기에 스페인어를 신청한 학생이 4,057,608명으로 전체 외국어 강좌 수강의 68.7%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래의 <표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4년과 비교해보면 26%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불어(-2.8%)나, 독일어(-13%)가 이 기간 동안에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표12> 미국 고등학교 주요 외국어 수강 현황(1994-2000)

언어	1994년	2000년	증가율
스페인어	3,219,775	4,057,608	+26%
불어	1,105,857	1,075,421	-2.8%
독일어	325,964	283,301	-13%

자료: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2002.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스페인어 수강생 수가 다른 언어에 비해 압도적이다. 2004년 미국 외국어학과 연합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2년 가을 학기에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스페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학생은 746,267명으로 전체 외국어 수강생 수의 53.4%를 차지하며 다른 외국어 수강생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과 비교하여 불어나 독일어가 각각 1.5%, 2.3%의 증가에 그친 반면, 스페인어는 13.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13> 미국 대학교 주요 외국어 수강 현황(1998-2002)

언어	1998	2002	증가율
스페인어	656,590	746,267	13.7%
불어	199,064	201,979	1.5%
독일어	89,020	91,100	2.3%

자료: Welles 2004.

이와 같은 학생들의 스페인어 선호는 미국 기업의 스페인어 구사자에 대한 선호와 맞물려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000대 기업 경영자들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유용한 언어로 스페인어를 꼽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스페인어 구사자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14> 미국 1000대 기업 경영자가 본 비즈니스에서 유용한 언어

언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잘 모르겠음
비율	63%	16%	11%	4%	2%	4%

자료: USA Today, 1997/04/03

2. 반 스페인어 정서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인들의 스페인어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의 스페인어 사용에 대해서는 미국 주류사회의 강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른 이민자과 달리 히스패닉이 세대가 지나서도 스페인어 및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히스패닉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그들은 누구든 미국에 살기를 원하면 미국의 주류 언어인 영어를 배워 빨리 주류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1980년대부터 미국 보수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영어 공용어화 운동(English only)”이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각급 학교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반대 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사실은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어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학교 및 각종 기관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한 영어 공용어화[7]와 이중 언어교육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는 아래 <표15>에서 보듯이 거의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12번의 주민투표가 영어 공식화와 이중 언어교육을 놓고 4개주 3개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2002년 콜로라도주만 빼고 모두 통과되었다.

---

7) 미국은 비록 영어가 주류 언어이지만 헌법에 영어가 공용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15> 언어주민투표(1980-2002)

연도	지역	목적	찬성률
1980	플로리다 데이드 카운티	1973 이중언어 조례 개정	59%
1983	캘리포니아	비영어 투표용지를 요구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률 반대	62%
1984	캘리포니아	영어로만 된 선거자료의 합법화 촉구	71%
1986	캘리포니아	영어의 공식 언어화	73%
1988	플로리다	영어의 공식 언어화	85.5%
1988	콜로라도	영어의 공식 언어화	64%
1988	애리조나	영어의 공식 언어화	50.5%
1989	매사추세츠 로웰	영어의 공식 언어화 및 미국 헌법의 영어 수정안 승인 촉구	67%
1998	캘리포니아	이중 언어교육의 종식	61%
2000	애리조나	이중 언어교육의 종식	63%
2002	매사추세츠	이중 언어교육의 종식	68%
2002	콜로라도	이중 언어교육의 종식	44%(부결)

자료: Hurtington 2004, 209.

미국 내 친(親)영어단체들은 지금과 같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여 미국사회에 대한 동화율이 낮아진다면 미국은 결국 두 언어(영어/스페인어), 두 문화(앵글로/히스패닉)를 가진 나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Hurtington 2004).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과 영어와 스페인어를 다 잘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 내 히스패닉 이민 2세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지만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고 일상에서도 영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다.

3. 스페인어 장래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이민자들이 가져온 언어는 1세대를 거쳐 2, 3세대에 가면 사라지는 운명을 겪었다. 미국 내 스페인어도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없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어가 다른 이민자들의 언어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페인어도 2세대에 가면 그 사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단지 신규 이민자의 유입이 그 과정을 더디게 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Moore & Pochon 1985).

그러나 스페인어가 다른 이민자의 언어와 다른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스페인어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Garrido 2001). 또한 스페인어 사용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규모,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 경제의 세계화 등은 미국 내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고, 스페인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 특히, 중남미와의 경제교류의 확대는 미국 내 이중 언어 사용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히스패닉이 스페인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내의 스페인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규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이다. 현재 미국에는 매년 약 7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 이에 더하여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약 30만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가 향후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가

계속 사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경제구조로 보아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수가 가까운 장래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내 스페인어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스페인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히스패닉 사회의 언어 및 문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페인어 특성 상 부모가 자녀에게 스페인어를 전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히스패닉의 언어태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히스패닉들이 스페인어 전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jías & Anderson 1988; Silva-Corvalán 1994).

Ⅳ. 나가면서

미국 내 히스패닉은 최근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흑인을 제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이들 대다수의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영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약진을 거듭하여 이제 미국의 일부에서 스페인어 사용의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는 전 세계의 언어가 영어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분명 이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 내 스페인어는 그 상황이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주류사회의 언어가 아닌 소수 이민자들의 언어인 것이다. 따라서 세대가 지나면 자연히 소멸해버릴 지도 모를 그 장래가 불투명한 언어이다. 실제로도 이민 2세에 가면 스페인어 사용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스페인어는 다른 이민자들의 언어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어 사용국가의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가져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 또한 미국의 경제구조상 중남미 출신의 신규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스페인어가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민 1세대가 아니더라도 스페인어가 미국 사회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민 2, 3세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히스패닉 사회에서, 특히 각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히스패닉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술논문

Arbitron Inc.(2002), *Hispanic Diarykeeper Language Report*,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2000), *Foreign language enrollments in public secondary school, Fall.*

Cultural Access Group(2002), *A tale of two cultures: 2002 L.A.'s Latino youth*, Los Argeles.

Engstrom, D. Wells(2000)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An Agenda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ing.

Garrido Medina, Joaquín(2001), "Hispano y español en Estados Unidos",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ponencias/unidad_diversidad_del_espanol/3_el_espanol_en_los_EEUU/garrido_j.htm.

Hudson-Edwards, A and G. D. Bills(1982), "Intergenerational Language Shift in an Albuquerque Barrio" in J. Amastae and L. Elías-Olivares(eds.) *Spanish in the United States: Sociolinguistic Asp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López Morales, Humberto(1998), "Hispanohablantes en los Estados Unidos: Indice de lealtad lingüística, en *Tercer Seminario International sobre la Lengua Española en los Estados Unidos*, París: UNESCO/UNION LATINA.

Mejías, H.A. and P.L. Anderson(1988), "Attitudes toward use of Spanish on the South Texas Border", *Hispania*, vol.71, pp.401-407.

Moore, J. and Pochon, H.(1985),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entice-Hall.

Pew Hispanic Center(2004), *Survey Brief March 2004. Bilingualism.*

Sánchez, Rosana(1983), *Chicano discourse: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New York: Newberry House Publishers.

Silva-Corvalán, Carmen(1994), *Language contact and Change: Spanish in Los Angeles*, Clarendon: Oxford.

Welles, Elizabeth B.(2004), "Foreign Language Enrollments in United State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all 2002", *ADFL Bulletin*, Vol.35, pp.2-3.

2. 신문 및 기타

Time 2001/06/11

USA Today 1997/04/03

USA Today 2001/05/19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논문 투고일자: 2005년 5월 7일